

“순박한 어머니 모습이 바로 별교의 미소”

30년 찍은 어머니·아버지 사진 모아 책 낸 사진작가 최용백씨



최용백씨

1950년대 결혼사진 등 293점 담아
부모님 결혼 60주년 기념해 발간
간병일기, 고향 별교 이야기·사진도
“평범한 인물 기록도 의미 있어”

별교 출신 사진작가 최용백(54)씨는 인자하고 순박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늘 ‘보살같다’는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를 며칠 다닌 게 공식적인 배움의 전부지만 어머니만큼 지혜로운 분은 없다고도 생각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최작가는 지난 1986년부터 어머니 진옥순(80)씨의 모습을 영글에 담아왔다. 평생 별교에 살며 농사일에, 집안일에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물론이고 병상의 모습도 꾸준히 촬영했다.

최작가는 올해 팔순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사진집 ‘별교의 미소, 어머니의 시간’을 펴냈다. 아버지 최갑진(84)씨와 어머니가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금강혼식’(金剛婚式)을 기념하는 책이기도 하다. 사진집에는 아버지 사진도 함께 담았다.

책에는 1957년 부모의 흑백결혼 사진 등 과거 앨범 사진 29점과 이후 최씨가 촬영한 264점 등 총 293점의 사진이 실렸다. 한여름 고추 따는 모습, 비닐하우스서 딸기 재배하는 모습, 회갑연 장면, 아버지 이발해 주는 장면 등 ‘여든살 전옥순’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유명한 사람의 인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처럼 평범한 인물, 평범한 농사꾼의 삶을 오롯이 기록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군대 제대 후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했는데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에 제 사진과 부모님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이번에 펴낸 작품집 제목은 ‘별교의 미소, 어머니의 시간’(숲과 샘 간)이다.

“사진집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책에는 별교 사진도 실렸는데 말 그대로 별교의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구요. 한편으로는 보살처럼 너무 순박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별교의 미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 촬영은 연출이나 기교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에 무게 중심을 뒀다. 생생한 모습 그대로를 사진에 담았고 사진 작가의 주관적인 개입 대신 필름, 슬라이드, 디지털, 핸드폰 등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했다.

사진집에는 지난 2016년 허리 수술과 백내장, 대장 수술을 했던 어머니와 고관절 수술을 했던 아버지를 160여일간 간병하며 촬영한 ‘병원일기’ 사진도 함께 넣었다. 그 모습 역시 부모님의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진집에는 고향 별교의 이야기와 사진들도 담았다. 읍지나 면지 등을 제작하기는 하지만 작은 ‘마을’ 이야기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아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동네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다.

별교중, 별교상교를 거쳐 인천재능대서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가천대 포스트그래피 전공 석사 과정을 졸업한 최씨는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인천, 어제와 오늘’ 등 인천 관련 다큐멘터리 사진집 30여권을 작업했다.

1년이면 7~8차례 부모님을 찾는 최씨는 고향의 모습도 꾸준히 담고 있다. 별교의 뽕배와 녹차밭이 주 테마다. 최씨는 앞으로 ‘병원일기’와 사진을 배운 후 고향 친구들 결혼식 마다 ‘재미있게 찍어줬던’ 사진을 모은 사진집도 구상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별교의 미소, 어머니의 시간’ 책 표지



1957년 부모님 결혼 사진.

문화전당 야외무대에서 ‘미리 보는 광주여성영화제’

13~14일 ‘노라노’ ‘와즈다’ 상영

‘미리 보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3일~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11월에 열린 8회 광주여성영화제를 한발 앞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야외 무대에서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여성영화명품전’이 마련된다.

첫 번째 작품 ‘노라노’는 13일 밤 9시에 상영된다. 85세 패션디자이너 노라노, 윤복희의 미니 스킷, 펠 시스템즈의 판탈롱, 엄앵란의 헵번 스타

일 등 여성들이 욕망하는 스타일을 창조하고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자 했던 한국의 코코샤넬, 노라노의 삶을 재조명한다.

두 번째 작품 ‘와즈다’는 14일 밤 9시에 상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감독영화로 ‘여자는 왜 자전거를 탈 수 없냐’며 코란퀴즈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자전거를 사겠다는 계획을 세운 10살 소녀 와즈다가 주인공이다.

한편 8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22일~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 선비 임재당의 아내 사랑’ 학술대회…내일 보성소리전수관

지난 2014년, 조선시대 보성군에 거주하던 선비 임재당이 쓴 일기 ‘갑진일록’(甲辰日錄)이 발굴돼 번역출간됐다. 일기에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임재당이 쓴 ‘도망시’(悼亡詩) 100여 편이 실려 있다. 남존여비 가치관이 엄격했던 시대에, 진솔한 부부의 사랑을 나눈 임재당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조선 선비 임재당의 아내 사랑’을 소재로 한 학술대회가 14일 오후 1시 보성군 서면재 보성소리

전수관에서 열린다. 장흥임씨 대종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청과 나라연구원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형철 정광고 교장 사회로 장흥임씨 대종회 회장 임정모 씨의 환영사, 황주홍 회원들의 축사와 박규홍 경일대 교수, 임미정 연세대 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5340-013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작가 19명 대구 작가 22명 ‘달빛 교류전’

23일까지 백년갤러리

▶정미희 작 ‘Lotus story’



대구와 광주 작가들이 만나는 ‘달빛 교류전’이 13일부터 23일까지 광주예총 백년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구에서 ‘광주미술작가회’(회장 정미희)와 대구의 ‘강북예인전’(회장 장정희)이 합동전을 연 이후 두 번째 전시다.

광주에서는 김강수·김선희·김재복·박해경·유

태환·장세관·정성복·장복수·정홍기 작가 등 19명이, 대구에서는 권미경·김선영·김정기·김희경 작가 등 2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풍경, 인물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오픈링 행사 13일 오후 4시30분.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논스톱 음악축제 ‘가을 연가’ 내일 시작동통기타거리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제2차 논스톱 음악축제 ‘가을 연가(Autumn Sonata)’가 오는 14일 오후 5시 시작동 통기타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축제는 지난 9월 열린 첫 번째 어쿠스틱 뮤직캠핑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뮤지션과 관람객간 참여를 통한 소통과 음악거리 조성 및 팝아트 전시, 길거리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버스킹 공연에서는 광주 통기타 1세

대인 고(故) 이상순씨의 정취가 묻어 있는 라이브 카페 올덴뉴에서는 추억의 팝과 가요 등을 전문 DJ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무료 음악 감상실이 운영된다.

시작동기타 뮤직 스테이션에서는 이곳 거리의 12개 상점을 화폭에 담은 수채화 거리가 운영되고,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상주작자 작품 전시 및 레코드판을 업사이클링한 상품과 음악 테마상품 판매도 이뤄진다. /전은재기자 ej6621@

‘오! 금남관 프리덤’...광주민예총 민족예술제 내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광주민예총예술단체총연합(이하 민예총·회장 허달용)이 14일 오후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민족예술제를 개최한다.

‘오! 금남관 프리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민예총의 춤, 노래, 전통악기, 풍물, 합창 등이 한데 어우러진 극을 상연한다. 예술감독은 윤만

석이, 총연출은 박정운 극단 토박이대표가 맡았다. 무료 공연이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작 전 극장 2에서 티켓을 받으면 된다.

민족예술제는 민예총의 예술단체들이 준비한 공연을 총망라한 문화예술축전이다. 누구보다 시대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광주정신으

로 뭉쳤던 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행사다.

한편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주먹밥을 나누어주고,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5·18진상규명의 열원을 담아 낸 조형물을 채색 할 예정이다. 문의 062-529-115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